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신명 26,4-10

회답송 | 시편 91(90),1-2,10-11,12-13,14-15



(후렴) 주 님, 환 난 가 운 데 저 와 함 께 계 시 올 소 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순, 부활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할 수 있다.” 「로마 미사경본」

제2독서 | 1 코린 15,54-58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 루카 4,1-13

영성체송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가 | 입당성가 119. 1~2 **예물준비 219**
영성체 504 **파 견 119. 3~4**

미사 봉헌

연미사

윤알렉산더
윤알렉산더
김미경
곽두연
이경남 엘리사벳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이정진 안토니오
이선균 요한

생미사

선발예식참가 예비신자 17명과 교리봉사자
강명옥 프란치스카 축일
강명옥 프란치스카 축일
하서진 크리스토퍼, 하서현 이사벨
김선헌 데레사 건강회복
최미양 마르티나
김승애 클라라
김하나, 제임스
서하연 프란치스코 가족
백이백 아우구스티노, 이정현 헬레나
박지호 Jeremy 요한 유아세례 축하
이서원 마리로사
오정민 세레자 요한 가정
최연수 울리안나 가정
신정희 마리아
이영애레지나,이지연안나레지나,이지훈아네스
김효주 수녀
김효주 수녀

봉헌

이문화 막달레나
윤이시돌
이태주레오, 장민우레아
문홍빈 가족
신동은
이태경 막달레나
익명
익명

봉헌

익명
김민경 로사
익명
하태일 안드레아
남지혜 데레사
익명
민재인 데레사
가족
익명
익명
송영중 요셉
익명
익명
하영숙 베로니카
익명
익명
김애희 테클라
강진영 릴리안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3월 9일	이지훈	민완준	이경자	고은경	유정옥	최예준 조성윤
3월 16일	장혜윤	이태주	김승연	민덕미	이지연	조성윤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미사후 전신자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강사 : Fr. 이웅희 루카
주제: “거룩함으로의 부르심”(Conversion)
일정: 미사직후~12:00(다미안홀)+김밥
* 이날 미사직후 모든 단체모임은 사순특강으로 대체 됩니다.

판공성사: 오늘(3/9), 3/16, 3/23, 3/30 2pm~5pm
고해사제: Fr. 이웅희 루카 장소: 사무실

고해성사 하실분은 미리 원하는 시간을 신청해 주세요
347-834-5784 (효주수녀)

▶청년 판공성사

일시: 3.8(토) 3:30pm~5:50pm 아랫성당.
고해사제: Fr. 이웅희 루카



▶성사표

사순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본당 또는 다른 장소에서 고해성사를 보신 교우들은 성사표를 기록하여 사무실앞 박스에 넣어주세요

▶예비신자 선발예식. 오늘(3.9) 2pm

일정: 오늘(3.9) 2PM. 뉴욕대교구 패트릭 주교좌성당
대상: 2025. 4월 부활성야 세례 예정자
예비신자 17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 받는 이 거룩한 예식에 교리봉사자, 신부, 수녀와 함께 참석하오니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본당수녀 인사이동

본당을 위해 헌신하신 김효주 수녀님께서 수녀회 인사발령에 따라 본당을 떠나십니다.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별미사: 3.16(주일) 09:15
새수녀님 환영미사: 3.23(주일) 이웅희 루카 OFM 신부



▶교우들은 미사중에 함께 성가를 부릅니다.

자기 목소리로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에페 5,19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09(일)	꾸리아	
3/16(일)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3/23(일)	요셉회, 성모회	봉사자 4명:
3/30(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십자가 1
4/06(일)	청년회	주송1, 초2
4/13(일)	사목회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633-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208-5147
♡모집 대상: 세례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미동북부 여성 40차 꾸르실료

일정: 4.3(목)~6(일) 3박4일. 뉴튼수도원
신청: 민완준 필립보 간사 929.444.1411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는 주일(3월 9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오니, 미사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나하나 꽃피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생활 교리」

‘십자가 죽음’에 관한 몇 가지 물음

첫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기에, 그 일이 일어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주요 사안, 곧 율법, 성전, 그리고 유일신 사상 등과 관련되어 논쟁과 마찰을 빚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금지된 병의 치유 활동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마르 3,1-6), 또 성전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벗어나고 위배되는 말씀과 행위로 백성을 오도한다는 것이었다(요한 2,13-22).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죄의 용서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로 여겨졌기에(마르 2,7), 종교지도자들은 그분을 하느님 모독자로 고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예수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단지 종교지도자들의 선동과 책략에 따른 잘못과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사람들에게만 물을 수 없다. 왜냐면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1코린 15,3) 돌아가셨다면,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 수난의 장본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책임 대상은 ‘과거’의 성경 인물들을 넘어 ‘현재’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가톨릭 교회 교리서』 598)이며, 그들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탈출 34,6)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원하셨는가? 당시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못 박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 이전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태형(笞刑)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조소 속에 마지막 시신마저 새들의 먹이로 넘겨주어야 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죽음이었다. 더군다나 이 참혹한 십자가 죽음이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사도 2,23)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예수님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단연코 하느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희생과 봉헌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원하는 이는 없다. 다만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요한 3,16) 당신 아들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그저 수동적으로 겪으셨는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하신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요한 10,18).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신 수난이 다가오시자”(『미사통상문』 제2양식) “가장 자유롭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09).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곧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에 온전히 ‘순명’하시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요한 13,1)하시기 위해 온갖 모함과 배척 그리고 배반 속에서도 당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 맡기셨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끝장판’으로서, “이제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죽음”(성 데레사)이었다! 윌리엄 토마스 신부